내년 정부예산안 전략산업 분야 1천853억원 반영 의료기술·드론·항공·조선 등 성장동력 확보 기대

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 야 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 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전남도는 1일 "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국비 1천853억원이 반영 됐다"고 밝혔다. 'm-RNA 백신 실증지 원 기반 구축' 등 신규사업 14건을 포함 해 미래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사 업 63건이 포함됐다.

모더나,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기술인 m-RN A를 활용한 'm-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' 14억원을 포함해 '진균류 바

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' 26억원 등 이 신규 반영돼 K-글로벌 백신 허브 조 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.

암·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'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 구축' 103억원, 백신 개발 컨설팅과 임상시험, 품질검사 등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'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 건립' 96억원 등이 계 속사업으로 반영돼 내년 시설 개관이 차 질없이 이뤄질 전망이다.

'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' 40억원, '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 업' 10억원 등을 통해 에너지, ICT 등 첨

단산업 R&D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.

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, 자원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'에너지저감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' 3 3억원 등이 신규 반영돼 온실가스 저감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미래 교통수단인 드론·항공 분야에선 '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 구축' 20억원, 'eVTOL 자율비행 핵심 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' 5 8억원 등을 통해 차세대 드론산업의 비 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. e-모빌리티 생 태계 조성을 위한 '초소형 e-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' 53억원 등 으로 e-모빌리티 지역특화를 위한 산업 기반 확충 및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

전남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는 국제 환 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로 지역

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'친환경 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 반 구축' 68억원, '조선해양 친환경 특화 기술 공유플랫폼 사업' 26억원 등이 반 영됐다. 친환경선박과 관련해 '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' 19억원 등이 신규 포함돼 전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이 밖에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광양만 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한 '수송기기 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' 18억 원,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' 147억 원 등이 반영돼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스마트산단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.

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"전략 산업 분야 국비 확보를 통해 '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'를 실현하고, 지속가능 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"고 말 /김재정기자



광주전남연구원, 직장내 갑질 근절 선언

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기 위해 직장내 갑질 근절을 선언했다.

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갑질 근절과 예방을 위해 '갑질없는 직장 만들기' 선 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 〈사진〉

이날 선언식은 박재영 원장을 비롯한 연구본부장, 실·국장단 등 보직자 중심 으로 참여해 "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 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, 직원들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 폭언·폭행 등 모욕

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"고 다짐했다. 이에 따라 연구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1일을 '상호존중의 날'로 지정해 내부적 실천을 이어나가기로 했다.

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"선언식 을 통한 실천 다짐과 제도적 장치 구현 을 통해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없도록 노 력할 것"이라며 "상호 존중하고 배려하 는 조직문화가 확산돼 윤리경영의 모범 기관이 되기 바란다"고 전했다.

/임후성기자

5



'더 좋은 광주, 성평등을 향해'

202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'더 좋은 광주, 성평등을 향해'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양 성평등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. /김애리기자

광주지역 김밥 식중독균 '안전'

시 보건환경연구원, 즉석 조리 판매업소 66곳 수거검사

최근 김밥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가 운데, 광주 분식집 등에서 판매되는 김 밥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.

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즉석 조리·판매업소 66곳에서 수거한 김밥 71건을 검사한 결 과 식중독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.

살모넬라, 장출혈성 대장균, 황색포도 상구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등 다른 지 역에서 김밥 등 즉석 섭취 식품을 통한

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 식품 안전과, 5개 자치구와 함께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기온 과 습도가 높은 8-9월에 집중적으로 발 생하므로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

특히, 즉석 섭취 식품인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 체해 음식 재료와 도마, 칼 등 조리기구 용기 간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

한다. 달걀 깨기,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 고,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.

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업소뿐만 아 니라 각 가정에서도 ▲생활 속 실천 가 능한 손 씻기 ▲익혀 먹기 ▲끓여 먹기 ▲세척·소독하기 ▲조리기구 등의 구분 사용하기 ▲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 해야 한다.

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"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·사안별 오 염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원인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 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/오승지 기자

불법광고물 꼼짝마!

市, 17일까지 특별정비 나서

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 해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'불법 광 고물'을 특별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.

이번 특별정비는 광주시와 자치구 10 개 반 28명의 정비반을 구성해 6일부터 17일까지 버스터미널, 철도역 등 교통관 문과 주요 간선도로, 전통시장 주변 등 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

중점 정비대상은 ▲주요 관문과 간선 도로, 역과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▲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▲유흥 밀집지역의 퇴폐적인 불법 전단지 ▲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풍선광고 등이다. /오승지기자

전남도, 개별공시지가 열람・의견 접수

23일까지 토지이동 6만7천필지

전남도는 1일 "올해 상반기 동안 분 할, 합병,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일어 난 6만7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·산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"고 밝혔다.

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ㆍ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우편, 팩스, 방문 등

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 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 밀 검증과 시·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10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.

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 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/김재정기자

文정부 출신 최용선 전 靑 선임행정관 이재명 캠프 합류

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용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.

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와대 출신이 합류함에 따라 '김대 중-노무현-문재인' 정부의 뒤를 잇는 이 캠프의 조직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.

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'열린캠프'에 따르면 최 전 선임 행정관을 인재영입실 무지원단장으로 영입했다.

앞서 법조 출신인 강문대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민 생활 안전을 책임져온 정 재혁 전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사회통 합추진단장과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으 로 각각 영입했었다.

신임 최 지원단장은 인사 분야에서 활 동한 경력을 살려 열린캠프에 영입되는 다.



인재를 관리하고 검 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. 그는 문재인 대 통령 출범과 함께 청 와대에 입성, 안보와 인사 분야를 담당해 온 '안보 및 인사 분 야 전문가'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 관실 행정관 재직 당시 인사 및 조직 개 편 등 국가안보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.

열린캠프 관계자는 "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들이 잇따라 열린 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"라며 "열린캠프라는 이름 그대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 /이종행기자



+